

고착개념을 디딤돌로 활용하면 차별점을 알리기 쉽겠군요.

연습 삼아 디딤돌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 유럽에 인시아드(INSEAD)라는 대학이 있어. 명문 경영대학인데, 실력에 비해 한국에는 덜 알려졌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까?

이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57년에 클로드 잔센과 올리비에 지스카르 데스탱이 벤처 자본가인 조지 도리엇과 함께 설립했어. 개교기금은 파리 상공회의소에서 지원받았고, 프랑스 퐁텐블로라는 경치 좋은 지역에 자리했지. 1960년에 1기 MBA가 배출된 이래 1968년에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했어. 1989년에는 박사과정도 시작했고, 2003년에는 Executive MBA 과정도 개설했지. 2012년부터는 각 전공을 특화해서 MBA 과정을 만들었어. 어떤 대학인지 알겠지?

알긴 뭘 알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하하.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학교를 기억시킬 수 있을까?

‘명문 경영대학(POP)’이라 하면 우리의 고착개념상 어느 대학이 딱 떠올라? 그렇지, 하버드. 그래서 여기는 하버드 대학을 디딤돌로 삼았어.

그럼 차이점, POD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 대학의 본교는 유럽에 있잖아. 그래서 이 학교를 소개할 때 ‘유럽의 하버드’라고 해. 이제 인시아드를 잘 모르는 분에게 “이 학교가 명문 경영대학으로서, 소위 ‘유럽의 하버드’라고 하지요”라고 하면 아마 잘 안 잊어버릴걸.

룰루레몬은 럭셔리 패션 요가복인데, 어떻게 말하면 더 깊이 인식될까? 사람들의 고착개념 속에 ‘럭셔리 패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샤넬. 그러니까 ‘요가복의 샤넬, 룰루레몬.’ 이